

여수산단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개소

283억 투입 1단계 준공 촉매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 2단계 280억 규모 CCU실증센터 사업도 12월 완료

친환경 화학 공정 및 촉매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가 6일 여수 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문을 열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는 2단계로 구축된다. 이번에 준공된 1단계는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의 촉매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다. 2021년부터 총사업비 283억원(국비 100억 원)을 투입해 부지 9천900㎡, 연면적 2천502㎡(연구지원동·실증실험동 등 2개동) 규모로 구축됐다.

여수·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탄소중립형 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소중립형 석유화학 공정을 촉매 생산 실증 장비를 구축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촉매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시험·평가, 실증 등을 지원해 전남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저탄소·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2단계는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실증을 위한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다. 2022년부터 총사업비 280억원(국비 100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1천107㎡에 연면적 2천200㎡(기술실증동·기술지원동 등 2

개 동)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1·2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화학연구원 전남센터 13명)를 지역 조직으로 유치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2030년까지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는 탄소중립형 석유화학 공정 개발에 필수적인 촉매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원 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가 전남 탄소중립 화학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센터가 대한민국 탄소중립 화학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6일 오전 여수국가산단에서 열린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빈들과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22대 총선 프리즘

박지원, 해남·완도·진도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예비 후보(해남·완도·진도)는 6일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지역 발전과 총선 승리,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해남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지역 발전, 호남 정치 복원, 정권 교체, 윤석열 독주 정권과 끝까지 싸우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상한 위기에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다. 사람·지역·정책·정치·국가도 다 바꿔야 한다”며 출생 기본소득 도입, 인구감소지역 국가정책 전면 정비, 작물 피해 보상금 설치, 국가 주도 농업재해보험 정비, 고령화·저출산 실태 가중치 의무 반영, 이민청 호남본부 신설 유지 등을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신정훈, 어르신·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예비 후보(나주·화순)가 6일 어르신·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나주지역 버스 115대 중 13대가, 화순 농어촌버스 63대 중 7대가 교통약자 저상버스다.

이마저도 저상버스는 읍·동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고 다른 면 지역은 도로 굴곡, 방지턱 등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신 예비후보는 “어르신·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선버스 대체차시 저상버스 도입 확대, 광역버스 조기 도입,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시설·도로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공급 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김태성,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김태성 국회의원 예비 후보(영암·무안·신안)는 6일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공동 협약서는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과 부채 경감·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초안을 담은 것으로 김 예비후보가 당선 후 이행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예비후보는 농어 협약식에 앞서 김 예비후보는 농어



민 50여명을 초청, 지역농업 경영 실태 현안을 청취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희생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인구 유지 및 증가,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정준호 “검찰 압수수색 공천 개입 부당”

“불법 전회방 운영 개입 사실 없어…공천 절차 진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예비 후보(광주 북구갑)는 6일 “의도적인 검찰 압수수색 공천 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검찰 압수수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실제 관계자의 자진 출두, 모든 PC와 파일 등 제반 자료를 보존해 임의제출을 준비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압수수색 전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에서 북구갑 선거구가 제외됐고, 다음 날 오전 곧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특정 세력의 개입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예비후보는 “저는 불법 전회방 운영에 대해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은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며 “압수수색 영장 확인 결과, 대학생 스무 명 운영하는

그동안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언론 보도 과정과 고발 조치 경위, 압수수색 시점 등 모든 과정에서 경선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특정 세력과 선거에 무리하게 개입하려는 정치검찰의 모종의 결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또 “중앙당 선관위는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본건 혐의 사실과 경선 결과와는 하등 인과관계가 없음을 고려해 정상적인 공천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해빙기 한 달간 농업기반시설 등 안전점검

전남도는 6일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5일까지 한 달간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공사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례적으로 많았던 겨울철 강우와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저수지, 방조제, 양·배

수장 등 주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5천527개소와 배수 개선, 방조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사 현장 283개소다. 시·군, 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5개 반 33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진다.

시·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설·공사업장은 관리기관에서 직접 자체 점검하고, 안전등급 D급과 1종 시설물이 포함된 기반 시설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업장은 점검반이 합동 점검한다. /양시원 기자

전남선관위, 우체국 택배 테이프 활용 총선 홍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 홍보용 종이테이프를 도내 각 시·군 우체국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선거 홍보용 종이테이프는 유권자와의 접점 강화를 통한 투표 참여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남지방우정청과 협업을 통해 제작됐으며 선거일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종이테이프에는 국회의원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사전투표를 포함한 선거일 정보 등이 담겨 있다. /김재정 기자

무안에서 편하게 떠나자~! 골프의 천국 클락으로 GO!

무안출 클락 골프/ 관광 여행! (매주 목, 일 출발)

2024. 이. 04~2024. 03. 28일까지 / 목요일출발 3박 4일 | 일요일출발 4박5일

무안(MWX)출발 23:00 - 클락(CRK)도착 02:00 / 클락(CRK)출발 18:00 - 무안(MWX)도착 22:00

관광은 899,000원 부터~ / 골프는 999,000원 부터~

* 항공권만도 판매가능합니다

* 양국 정부 인허가 조건 * 운항스케줄은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가격이 다르오니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표 이사 **최승환**

◆ 공동조건 : 여행경비는 1인 기준, 1억원 여행보험가입, 항공 및 유류세, 전 일정 식사 비용(중식 제외), 숙박비

◆ 불포함 사항 : 국내수송, 기사 가이드팁별도, 락커비, 클럽중식비(골프의 경우), 여권, 개인경비, 캐디팁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원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 / 제 100-000-2023 0227 3586호

◆ 사용골프장 : 미모사, FA코리아, 루이스마 프라데라 CC 등 동급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상의요금은 날짜 및 인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사용호텔 : 4성급 호텔

조이투어

TEL.1522-1901